

화제의 전시회

혜천스님 대장경 판화전



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간 롯데월드 민속관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고려대장경 변상도를 양면 판화로 판각 판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혜천스님은 대장경 판화 세움보살 달마 나한 문수관자 등 1백여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는 판각, 원본과 조각 서각 동양화 선화도 함께 전시된다. (02)216-6957

'구도' 주제 한기능 조각전

불자작가 한기능 조각전이 지난 2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부산KBS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구도'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작가의 구도에의 간결한 표현과 불상이 가득 담긴 브론즈와 돌 작품

이 눈길을 끈다. 이탈리아에서 연속적으로 전시회를 갖는 등 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한기능씨는 참선에 든 스님, 연꽃 등을 형상화한 60여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기능작 '종도'.

미술로 본 20세기 한국인물展

불자작가 윤이상, 민족지도자 김구, 시인 김소월 이상 정지용, 무용가 최승희, 열사 류관순, 노동운동가 전태일... 우리 현대사에 족적을 남긴 큰 인물들을 현역 유명작가 11명이 다양한 재료와 표현양식으로 형상화한 이색전시회 '미술로 본 20세기 한국인물'

전이 서울 관훈동 노화랑 (732-3558)에서 오는 7월 16일까지 열리고 있다. 참여작가는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지난해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특별상을 받은 전수현, 이광중, 조각가 류인, 한만경, 이종상, 윤석남, 조석현, 민정기, 홍성담, 임옥상씨.

전통문화 일깨우는 미술전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문화사랑의 마음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로 개최된 '제2회 한일은행 전국미술대회' 입상자 전시회가 오는 30일까지 한일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다. 미취학 및 초·중·고생들을 대상으

로 실시한 이번 미술대회는 4만 8천여명이 응모해 192명이 특선이상 입상했다. 한편 이번 미술대회에는 목포산정초등학교 이부현 학생의 '불상'을 비롯 사할 목어 석탑 등을 소재로 한 그림 10여점이 입상했다.



◇동상을 차지한 이부현(목포 산정초등 5년)작 '불상'.

성보보존위 구성 '차일피일'

과학적이고 항구적인 성보문화재의 관리, 보존을 위하여 연구 조사 발굴 및 사찰불사 중심의 승인하는 종합적 성보전담기구 '성보보존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함에도 그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난해 조계종의 새 집행기구가 들어선 후 각 방면에서 불교의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추진되어 왔다. 그동안 방치돼 왔던 성보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연구를 위한 종단차원의 전문기구인 성보보존위원회(이하 '성보위')의 성립은 그 무엇보다도 선결

해야 할 과제로 꼽혀왔다. 담당 부서인 문화사화부에서는 이의 구성을 위해 위원 명단까지 작성했으나 활동을 뒷받침해줄 법적장치의 보완이 뒤따르지 못해 아직까지 총무원의 의결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기구가 단순한 자문기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난해 72년 제정된 '성보보존법' 내에 이의 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여년이 넘도록 사정돼 있

다시피 한 성보보존법의 개정 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화사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보위의 내역을 보면 건축 회화 불상 서지 공예 조각 등 분야별 관련 전문가 2~3명씩 총 20명내외로 구성된 총무원의 제청에 의해 총무원장이 위촉한다. 문화사화부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으며 고문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성보 보존관리에 대한 기본적 시책 △성보의 조사 발굴 연구, 포괄적 활용

인 강남 바사에 사격에 안맞는 미륵불이 모셔진 경우가 그렇고 선원으로 유명한 경북 문경의 바사가 아담하면서도 고색창연한 옛모습을 찾기 어려운 정도로 단청들이 화려한 대형 건물들이 들어서 선원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성보위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면 앞으로 불사형태가 크게 바뀔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성보위가 설치되면 불상 범종 탕화 등 성보의 봉안도 사

조계종 위원명단 초안작성... '인선신중론' 대두 무분별 불사 제어위해 성보보존법 보완 시급



영산재보존회(회장 대운)는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촌 봉원사에서 단오절맞이 제8회 영산재시연행사를 가졌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인 영산재 시연행사는 태고종 총무원장 혜천스님 송암 일운 지광 혜경 구하 일운 성일스님 등 보유자 및 준보유자, 전수교육보조자, 0수자 등 영산재보존회 스님 전원과 신도를 1천여명이 참여한 불교전통의식에 동참했다. 사진은 영산재 순서중 '식당작법'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금강합창단 불교음악축제. 천태종 금강교향합창단 창단 1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축제가 지난 14일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찬불가 '반야심경'으로 막을 연 공연은 박재원씨 지휘로 꿈나무들의 행진, 중국교포 박영자씨의 '공적새의 춤', 향가 '보현심원가'를 현대감각에 맞게 교성곡으로 완성한 대작 '나누는 기쁨' 등으로 이어져 참석자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단오(음력 5월 5일)는 일년 중 가장 원기가 왕성한 날로 일명 수릿날 중오절 천중절 단오이라고도 한다. 예전에는 단오가 큰 명절로서 여러 행사가 펼쳐졌다. 창포에 머리감기, 부적만들어붙이기, 대추나무시집 보내기, 단오비녀꽂기 등과 그네뛰기, 씨름, 활쏘기 등의 민속놀이가 행해졌다. 궁중에서는 단오부채를 만들어 신하들에게 하사하기도 하였다.

△종단 사찰불사 심의 승인 △성보보존 심의 승인 △지정 비지정 문화재의 보수 및 현상 변경 승인 △성보의 공개 전시 출품 대여, 국외반출의 심의 승인 △성보 및 사적지의 조사 발굴 복원 △성보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불교무형문화재의 조사 발굴 전승 및 보유단체 육성 등 성보문화재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게 된다. 이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중단 사찰 불사 심의와 승인 부분이다.

지금까지 사찰의 불사는 종단의 엄격한 심의와 점검을 받기보다는 당해사찰 주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혹여 부실한 불사가 돼도 이를 감시·제어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일부사찰에서는 사찰의 역사와 유래야 어떻든 건물불사는 무조건 크고 화려하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불사를 추진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선종 수사할

전에 철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확한 고증으로 역사성과 예술성이 겸비된 성보보존 및 불사가 이뤄지도록 관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성보위의 권한이 위원회의 결정을 뒤엎지 않게 하는 결립들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성보보존과 사찰불사를 심의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홍윤석교수(동국대 박물관장)는 "성보를 소장하고 있는 사찰의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물목록이나 관리대장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찰이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관리와 보존을 권장하고 감독해야 할 종단차원의 행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것이 큰 문제"로 하루빨리 성보보존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합죽선에 수놓은 그림보기'

단오부채 전시회, 백악예원서 27일부터

단오(음력 5월 5일)는 일년 중 가장 원기가 왕성한 날로 일명 수릿날 중오절 천중절 단오라고도 한다. 예전에는 단오가 큰 명절로서 여러 행사가 펼쳐졌다. 창포에 머리감기, 부적만들어붙이기, 대추나무시집 보내기, 단오비녀꽂기 등과 그네뛰기, 씨름, 활쏘기 등의 민속놀이가 행해졌다. 궁중에서는 단오부채를 만들어 신하들에게 하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단오부채의 종류와 뜻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단오부채전시회가 열린다. 한국선면예술협회(회장 문장호)주최로 오는 27일부터 7월3일까지 관훈동 백악예원(734-4205)에서 열리는 제7회 선면전(扇面展)에는 법승·일당스님 등 스님화가와 강행복씨 등 73인의 작가가 참여해 합죽선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전시한다. 수묵산수, 채색, 유화, 아



◇'선면전'에 나오는 강행복작 '꽃을 드니 미소짓다'.

크릴, 판화 등 다양한 형식의 그림이 들어간 단오부채가 한 국부채의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한국선면예술협회는 서울 전시회후 7월10일~25일 유성

홍인갤러리에서 또 한차례의 부채전시회를 갖는다. 한편 세계화랑(734-9662)에서도 '제미 있는 부채이야기' 이 오는 30일까지 열리고 있다. (속)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에서 찾으십시오.

모범업소(오랜전통) 동궁 결혼 연구원. 초혼·재혼. 저희 업소는 불교 신자가 운영하는 업소입니다. 소장 金銀子 합장. 문의전화:745-3005

척추교정·지압 시술 및 개인지도 (CHIROPRACTIC). 최효필교수(박) > 최윤희 각 권질 교정법. 정삼수 건강연구원. 연구장역 543-7306

보리수. 취급 각종수입항, 염주 일체 품목 불교악세사리.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사찰 안내 광고. 위치: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부지:약 400평. 건물:40평, 2층 두채, 오사채 별도. 특징:천불 부처님,종탑,종각, 산신각, 9층탑 정원수려하 다수. 연락처:064)32-6887, 32-1495

포교당 운영하실 분. 위치:동대문구 장안4동. 법당:50평,시설 일체 완비. 연락처:(02)245-0904. 비용:보증금 300만원. 시설 일체 1800만원. *운영 즉시 협회 가능합니다.

불교사업 동참하실 분. 불교 교육사업에 뜻이 있는 분. 불교지도자 양성사업 하실 분. 불교 단체 운영하실 분. *교육청 인가. 만 대 교 학 대 학 원. 등기1969호.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931-6075-6(대))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합원(대원사):대적광전·법상·경상. *승주(법당사):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각. *대진(전승)공사. 현대문 011-282-4609. 지 덕 02-248-4609. 공 금 0346-571-9538. 포 종 012-210-1401. 趙貞玉 합장

강원도 산사에서 수양하실분을 찾습니다. *경적종교 시설 편리한 사찰에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사찰일을 도우며 시설 건강한 분이나 노후를 보낼 부부도 환영합니다. *농사도 지을수 있고 학생이나 고시공부 하는 분도 받습니다. *문의전화:진곡사(0346-592-7315) / 강원도:(0346)461-7294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립 46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 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수시접수 (지방수련장 상담 환영). 수련과정:단련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02)735-6795·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림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

佛事 (불사) 하시는데 도움이 될수있는 '신비의 불탑다라니' 책자를 스님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佛塔다라니 자체에서 약하고 나쁜 운기를 강하고 좋은 운기로 바꾸어 주는 강력한 힘이 발생됨이 입증된 본회의 佛塔다라니 <금강경 신탑다라니>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2종류를 사용함으로써 인체(人體)와 영계(靈界)에 광범되는 기(氣)의 흐름을 체크하여, 집중화복을 판단할 수 있고, 조상영을 판단하여 복을 좋게 만들어주고 또한 佛塔다라니로서 영(靈)을 천도시키는 방법들이 수록된 귀중한 정보 자료를 현재사함을 운영하시는 스님께만 1권씩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 방법은 ① 신도 개개인의 현재의 복과 그 신도의 남편, 부인, 자식, 부모, 형제들의 운세까지도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 줄 수 있고 이 방법으로 스님께 신도들의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수시접수 (지방수련장 상담 환영). 수련과정:단련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02)735-6795·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림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木材할월방지제(갈리짐 변색). 木材방충·방부제 목재(항목)수입판매. 木材탈취제(청변근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포동 56-11. 상원B/D (을지로 2가). 전화:(02)266-2629. 팩스:(02)266-2679

책자신침 성지관음회. 주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농림리 30-1 (농림빌딩 3층). 전화: (0335) 34-9490, 39-1906. 야간: (0342) 706-3060